

EU, 농민단체의장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

2005년 3월 23일 유럽농민연맹(COPA) 의장 Peter Gaemelke는 유럽연합(EU) 예산집행위원인 Dalia Grybauskaite를 만나 EU의 새로운 예산 내역에 관해 논의했다.

Gaemelke 의장은 관련 예산을 EU 국민총소득(GNI)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2002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바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유럽의 농민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Gaemelke 의장은 예산 편성을 국영화하거나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동시장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농촌개발기금은 기존의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농업근대화에 있어 필수적인 원조 수단이다. 이와 더불어 pillar 1¹⁾을 통한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 농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과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조달한다. 아젠다 2000 이전에는 다양한 EU 구조기금(EU Structural Funds)의 지원 하에 농촌개발이 이루어졌다(주로 EAGGF의 지도부문). 1992년 CAP 개혁으로 도입된 3가지 ‘추가 정책수단’(accompanying measures: 농업환경, 조기은퇴지원, 농림지의 조림화 보조)은 EAGGF 보증부문에서 자금이 조달된다. 아젠다 2000을 통해 EU는 모든 농촌개발정책 수단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pillar 2를 조직하였다. 이는 CAP의 다양한 시장관련제도와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제도로 구성되는 CAP의 첫 번째 축인 pillar 1과 더불어 CAP의 두 번째 축으로 알려져 있다.

pillar 1과 2는 유럽의 농업활성화를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이 진행되면서 유럽 농업의 의사결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농민들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귀 기울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생산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WTO 협상은 유럽 농업의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 농업관련 예산을 2013년까지 동결시킨 2002년의 브뤼셀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료: 유럽농민단체연맹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